

영재부모 지원의 새로운 접근

태진미

고려대학교

그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영재성 발현과 성취를 위해 부모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무엇을’, ‘왜’ 라는 측면에서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영재학생의 부모역할이 중요하므로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부모교육을 통한 지원이 일반화 되어왔다. 이러한 현실은 자칫 영재부모 지원을 위해 보다 중요한 사항을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부모지원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영재부모 지원의 개념을 살펴보고 영재부모지원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탐색했다. 나아가 현재 영재학생의 부모지원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모 지원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총체적인 영재부모지원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영재, 영재부모, 영재가족, 부모지원

I. 서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특별히 영재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Clark, 1992; Olszewski-Kubilius, 2002; Silverman, 1993). 한편 영재의 부모들은 자녀의 영재성으로 인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욕구와 필요에 대해 적절한 지도역량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김성원, 최성연, 2002; 김정휘, 2001; 김현희, 2004; 김홍원 외 2003;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모든 영재아들은 서로 다른 인성과 선호, 능력을 지니

교신저자: 태진미(jmtae91@hanmail.net)

고 있으므로 각각의 아동에게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영재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학교나 가정에서의 지원은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부모 요인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부모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영재교육 기관의 교육을 초월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영재성 발현에 평생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위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및 부모 참여의 중요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로 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의 영재부모 관련 연구는 영재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 아동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구미숙, 2004; 김동춘, 2003; 양소희, 2007),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김은영, 2003; 김종선, 2008; 김현희, 2004; 송인옥, 2006; 원은실, 오종철, 2008; 최정남, 2005; 홍의숙, 2003),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에 대한 분석연구(이희영 외 2003),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정환명, 2008), 영재학부모와 일반학부모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비교연구(이영순, 2006), 영재 학부모의 자질과 양육자로서의 전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도정은, 1999; 문윤희, 2006), 영재아의 부모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성원, 최성연, 2002), 영재부모를 위한 지침(강충열, 2007; 조석희, 1987), 영재자녀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민경해, 2006) 및 과학영재 학부모 교육에 관한 결과보고서(박인호 외, 2006) 등이다. 이상의 연구물들은 영재부모의 인식이나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영재 부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한편 총체적 차원의 영재부모지원의 방향 모색은 국내의 영재교육 현황과 관련해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함께 취해질 때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해 관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연구자는 첫째, 영재성 발현 및 성취를 위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비해 실제적으로 영재부모를 지원할 행정적인 기준이나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체계적인 부모지원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의 부재는 영재교육 실무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부모지원의 계획과 실천을 불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재교육현황은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부모지원을 전개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일주일에 일회 두 시간 정도 잠깐 학생들을 만나 교육하는 형태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이 대다수인 현행 영재교육시스템에서 영재담당 교사가 영재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모와 소통하고 상담하는 방식의 부모지원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혹시 부족하나마 자료를 수집해 상담한다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깊이 있고 신중한 관찰과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능력, 상담능력이 전제가 되지 않은 채 상담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의 영재교육현실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자연히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부모지원방식 중의 하나인 ‘부모교육’이 영재부모지원의 주요 방식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영재부모지원의 개념이 ‘부모교육’이라는 측면에 편중돼 통용됨으로써 총체적인 부모지원의 방향 모색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부모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부모교육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 기관과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선택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영재부모지원의 다양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영재부모지원의 폭을 넓히고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재부모의 역할과 기능은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아의 성장 발달과 관련해 다양한 일상 속에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학년, 학교 급, 영재성의 분야, 행정, 교육, 정책, 유관기관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계성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현실 상황을 고려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영재부모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첫째, 영재부모 지원의 개념을 폭넓게 살펴보고 둘째, 영재부모지원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들을 탐색하며 셋째, 효율적인 영재부모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영재부모 지원의 개념적 고찰

1. 영재부모지원 관련 용어의 개념적 고찰

가. 영재부모지원 관련 용어의 개념

영재학생의 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첫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영재부모 지원활동의 대표적인 용어로 ‘부모교육’을 들 수 있다.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은 부모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강조된 용어이다. 예를 들어, 강연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태도나 기술, 전략을 가르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부모 훈련(parenting training)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부모훈련이란 부모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활동 중 특히,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활동이 강조된 용어이다. 둘째,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영재부모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 ‘부모협력(parent cooperation)’을 들 수 있는데, ‘부모협력’은 부모가 영재교육기관과 대등한 관계 하에서 협력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용어이다. 따라서 활동의 종류라기보다는 활동이 진행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모가 영재교육기관의 다양한 활동(예, 수업 활동, 부모회 활동, 영재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강조된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parent involvement)’라는 용어가 있다. ‘부모참여’의 정도는 단순히 보조교사나 보조자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교사를 채용하거나 영재교육기관의 재정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다양할 수 있다. ‘부모상담(parent counseling)’이라는 용어도 부모가 영재자녀의 특성이나 자녀의 양육에 관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사나 기관장과 의논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용어로, 정기적 상담과 비정기적 상담(예, 개인적 상담, 집단 면담, 개인 면담)이 모두 포함된다. ‘부모(가정) - 기관 의사소통(parent/ home-school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는 부모 또는 가정과 영재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예, 부모와 교사 간에 면대면, 쪽지, 통신문,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주고받기의 의미가 강조된 용어이다. ‘부모상담’에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의논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반면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비슷하지만 ‘부모(가정)-기관 관계(parent home-school relationships)’라는 용어는 부모 또는 가정과 영재교육기관과의 관계적 측면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미로 부모 협력과 마찬가지로 활동의 종류보다는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을 강조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셋째, 영재부모 지원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해 도움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부모개입(parent intervention)’이라는 용어가 있다. ‘부모개입’은 위기에 처한 부모를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강조된 용어로서 전통적으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 같이 다양한 이유(예, 빈곤, 가정 폭력, 이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영재 자녀와 부모를 돕기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넷째, ‘영재교육의 적극적인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의 부모지원은 부모를 단순히 양육자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영재자녀의 학문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사실적인 ‘영재교육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재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을 가정으로 연계해 일상생활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므로 영재교육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우고 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재부모의 활동을 예술(art)적 적용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다. 그간에 심리학, 아동학, 그 외 여러 행동 과학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모가 다양한 상황에서 영재 자녀와 총체적 관계(total relationship)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적합한 방법과 기술뿐 아니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상황에 따라 예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모의 자질을 키우도록 돕는 차원의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으로 연구자는 다섯까지 차원의 영재부모지원 방식을 소개했는데, 현재 국내 영재교육에서 시행되는 영재부모지원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부모교육’ 또는 ‘부모훈련’ 등의 지원활동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부모협력’, ‘부모상담’, ‘부모개입’, ‘영재교육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지원’, ‘예술적 적용 차원’에서의 부모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육의 성과를 위해서 부모-영재-교육기관-교사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지원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영재부모지원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개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 영재부모지원 관련 용어 사용의 개념적 고찰

종합해 볼 때 앞에 제시된 다양한 용어들 하나하나에는 부모교육과 지원의 정의와 현대적 경향이 담겨져 있다. 첫째,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나 영재부모교육과 지원의 최종적 수혜 대상이 영재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영재교육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영재의 성장과 발달을 최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사용과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재와 그 부모에게 맞춰져 있다면 영재학생의 부모를 위한 교육과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부모교육, 부모훈련, 부모개입 등과 같은 몇몇 용어는 일방향적인 영향력을 암시하는 반면 부모 협력, 의사소통, 관계라는 용어는 영재부모와 영재교육기관 간의 양방향적인 영향력을 암시한다. 점차로 부모를 ‘부족하고 가르쳐야(예, 지식, 정보, 능력, 전략 등)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함에 따라 용어의 사용도 바뀌고 있다. 한편 현재 많은 영재교육기관이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부모지원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 내용도 일방적인 교육이나 강연회 위주의 한정적인 부모지원활동이 시행되고 있어서 영재아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모로부터의 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최적의 영재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

2. 영재부모지원에 관한 논의

가. 왜 영재부모지원을 해야 하는가? - ‘영재부모지원의 이유’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맞는 적절한 양육방법을 아는 것은 교육

과 양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보통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영재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영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의 인터뷰(한기순, 2006)에서는 영재 학부모들이 자녀가 영재성을 지녔다고 확인될 때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 Braggett, Ashman과 Noble(1983)은 자신의 자녀가 영재라고 믿는 부모들을 조사했을 때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고민들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재부모들은 ‘영재아와 영재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영재의 부모들은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발달특성과 흥미가 다른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에너지 수준이나 과흥분성, 민감성, 완벽주의와 같은 특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재 자녀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는 ‘학교와 관련된 고민들’로서 경직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부적응과 같은 교육제도나 학교정책과 관련해 자녀의 우수한 학습능력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함에 대한 불만들이었다. 학교교육은 능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그 주된 초점을 맞추어 따라, 능력의 양 극단에 속하는 영재나 장애아들은 소외되는 경향(강충열, 2007)이 있어서 부모들은 영재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에서 겪던 문제와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Fouse, Beidelma 와 Morrison(1995)의 보고에 의하면 영재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가치관이나 교육목표 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음에 걱정과 우려를 표시했고 실제 이희영 외(2003)의 국내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영재부모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제들 중 세 번째로 꼽히고 있는 것은 ‘영재자녀를 조력하기 위한 관련 자료나 정보의 부족 문제’였다. 현재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영재성을 체감하고 구체적으로 조력하고 싶은 바람은 있으나 여전히 자녀의 영재성 발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자료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보장된 우수한 정보를 제공받을 곳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Chamrad, Robinson과 Janos(1995) 등은 영재자녀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꼽았으며 Okagaki와 Divecha(1993), Page(1983),

Takacs(1986) 등은 영재아의 행동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Baldwin(1994)은 영재아를 둘러싼 특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Rimm (2007)은 영재성의 미성취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부모와 교사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국내외적으로 영재부모가 그들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훨씬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재성 자체로 인해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영재성이 발달적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영재교육에서의 ‘발달적 연계성(강충열, 2007)’과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 ‘영재부모지원의 내용’

영재부모지원의 내용측면에서 첫째, 부모가 필요로 하는 내용 반영 시 부모의 호응과 관심이 증가하고,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교육하는 시기(시점)와 교육의 주제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김현희, 2004) 영재부모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기 전에 요구 조사 및 반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영재부모의 고민 사례 영역 및 세부 유목별 고민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영재아의 ‘개인특성요인’과 ‘학교요인’의 경우, 고민이 몇 개이든 항상 제기되는 고민으로 나타나고 모든 영재 부모들에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이희영 외, 2003), ‘영재의 개인특성요인’과 ‘학교요인’을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이나 상담 프로그램 계획 시 비중 있는 핵심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상담, 진로지도, 가정 연계 학습 및 협력 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으므로(김미숙 외, 2005) 영재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및 상담 측면에서의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재부모는 자녀에 대한 안내자와 해설자로서 자녀의 관심이 특별히 중요한 일상사의 측면으로 향하도록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Feuerstein, 1980) 지식중개자로서의 부모의 전문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 외에도 지원의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의 영재부모들의

경우 연령상 현행 영재교육의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못해서 자녀의 영재성을 진단하거나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위한 안내와 조언,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미성취영재나 장애 영재, 현행 영재선발제도로 발굴되기 어려운 영재의 경우는 영재교육을 수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더욱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실제적인 영재부모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한 포괄적 지원의 내용 선정이 필요하다.

다. 누가 지원할 것인가? - '지원주체'

강충열(2007)은 영재들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아들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능력의 양 극단에 속하는 영재나 장애아들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가정교육이 그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OECD(2004)의 교육 평등 즉,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학습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 성과에 있어서의 평등, 성과 이용에 있어서의 평등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에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에서는 장애아들이나 보통의 학생들과 달리 현저히 빠르고 독특한 관심과 사고, 발달 특성을 보이는 영재아들을 위해 일반교육제도로 충족되기 어려운 교육 평등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부가적 자원(additional resources)'의 제공이다. '부가적 자원'이란 다양한 요구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접근할 때 그들 역시 교육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자원 외의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을 이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OECD, 2004). OECD 국가들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정책 지침을 통해 부가적 자원의 하나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가족, 교사, 학교뿐 아니라 학교 외부의 조직이나 전문가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미션 외 2005). 한편 이들 OECD국가들 중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속에 영재를 포함시키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로는 캐나다, 멕

시코, 스페인, 터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부가적 자원의 대상자로서 영재를 범주 B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Alberta의 경우 중도 정서/ 행동장애(코드 42), 경도/ 중등도 정서/ 행동장애(코드 53), 학습장애(코드 54)와 함께 우수아(코드 80)를 특수교육 요구학생으로 선정하고 부가적 자원의 수혜 대상으로 삼아 일반교육 이상의 전문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영재교육 외에 지방교육당국, 기타 교육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영재와 영재의 부모, 그들이 속한 학교를 위한 특별한 교육, 지원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운용을 하고 있다. 물론 OECD국가들 모두에게 영재를 위한 특별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이들 중에는 영재를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시킨 나라도 있지만 포함시키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시켰어도 예산의 비율과 실제 내용 면에서 각 나라의 현황은 다르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대상자로서 영재를 포함시켰던 제외시켰던 간에 영재를 위한 부가적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제공하는 OECD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가적 서비스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전국규모의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국립지원센터, 행동지원센터, 전국 영유아 기술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해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에서 국가 영재교육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기타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각 부처관련 분야의 영재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KEDI 영재교육연구원은 국가 영재교육정책의 종합적인 수립을 위한 기초 정책 연구 및 개발,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성과평가 및 질 관리 등을 통해 중앙부처의 영재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각 해당분야의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로 교육기관을 지원한다. 교육기관인 시도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과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영재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행정적으로 지

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의 발굴, 육성 등 과학영재관련 사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과 같이 영재교육과 관련해 중앙부처로서,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재단으로서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부모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총체적 차원의 영재부모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와 행정체제는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각 기관의 고유 영역은 존재하되 각 기관이 병합해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영재의 건강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와 기구는 부재하다. 최근 각 부처, 기관, 담당자간의 활발한 연계노력이 있으나 ‘영재교육관계자 연계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져(한국교육개발원, 2009)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계를 도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는 상설 연합조직으로서 다양한 전문인(행정가, 교육자, 치료사, 심리학자, 상담사, 연구자, 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 영재아와 영재부모, 영재가 속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종합해볼 때 현재 국내 영재교육은 큰 틀과 의미에서 그 형식과 내용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영재교육기관과 가정, 학교, 부모와 영재학생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된다. 물론 영재교육자체도 외국의 경우처럼 연속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고 일반교육과의 연계성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상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차원의 부모지원을 전개할 만큼 전문적인 영재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부모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적 행정적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장기적 영재교육성과 및 가정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큰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이에 단시간 내에 혁신적 변화는 일으키기 어려울지라도 국내 영재교육의 현실상황을 고려해 영재교육기관과 가정, 연구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모지원의 체계마련을 위해 단계적, 중장기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라. ‘어떻게’ 지원하는가? - ‘지원의 방법’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으로서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

표적인 활동들은 ‘부모회’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집단토의’, ‘분단토의’, ‘역할극과 심리극’, ‘영화감상회’나 ‘독서’, ‘공개 좌담회’ 등이 있으며, ‘가정방문’, ‘가정통신’, ‘면담’, ‘상담’ 등의 지원이 있다. 그밖에도 ‘워크숍’, ‘수업참관’, ‘보조교사로서의 참여’, ‘운영 자문으로서의 참여’, ‘도서대여’, ‘웹사이트 운영’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문혁준(1999), 김연진(1983)의 연구에 의하면 영재학생의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모 지원의 운영방법은 ‘면담’으로 나타났고, 민경혜(2006)의 연구에서는 ‘강연’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개별적 발달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강연’ 형태의 부모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들은 영재교육과 관련한 지식들을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배우기를 희망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경혜(2006)에 의하면 영재교육 관련해 비교적 초보단계인 부모들은 다른 형태보다 적극적인 행동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심리적 부담감이 적은 ‘강연’을 더욱 선호했고, 교육경험이 비교적 많은 부모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학생의 부모를 위한 지원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욕구가 대상자의 영재교육관련 경험 또는 선행 지식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SENG(Supporting Emotional Needs of the Gifted)’의 Model Parenting Groups(SMPG's)은 총체적 차원의 영재부모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본 연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영재부모지원의 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SENG(Supporting Emotional Needs of the Gifted)은 영재의 정서적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서 많은 활동들 중에 ‘영재부모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SENG은 특정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편적 지원방식과는 구별되게 SMPG's라는 영재부모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연구하며 지원하고 있다. SENG은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재’ 개인과 그들의 ‘가족’, ‘영재관련 전문인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 제공하고 있다. SENG이 2009년 현재 실천하고 있는 총체적 차원의 부모지원의 첫 번째 영역은 ‘SENG Model

Parenting Groups(SMPG's)'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NG을 통해 이들은 영재자녀들과 비슷한 학생의 부모들과 연결(관계)될 수 있으며 영재가족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쌍방의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나 자원을 얻기 위해 접근하는 촉진자(facilitator)를 위한 웹사이트의 영역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된 촉진자(facilitator)명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정보 및 자질을 공개해주시기도 한다. 영재 학생의 부모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특전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SENG 안에 있는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SMPG 참가자들을 위해 진행 중인 지원을 책임지는 것, SMPG참가자들이 촉진자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SENG의 주된 서비스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SENG은 공인된 촉진자들에게 그들과의 정보접촉을 업데이트하고 그룹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SMPG 체험을 하기 위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의 부모를 위해 도움을 제공한다. SMPG 참가자들이 등록하고 SMPG 체험을 위한 지불이 용이하도록 지원할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직에서 SMPG's의 지방 촉진자, 훈련담당자의 감독자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SENG의 제 1영역은 영재부모그룹을 위한 지원모델로서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재부모지원의 주요 접근이 '부모교육'에 집중돼있는 우리의 지원방향과 비교해볼 때 다양한 차원의 협력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SENG의 모델의 구체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SENG의 두 번째 영역은 '영재학생의 정신건강과 의학 공동체를 통한 연장교육'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미국 심리학 협회를 통해 SENG이 신뢰로운 연장교육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인하고 APA구성원과 다른 심리학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개해 준다. 프로그램을 위한 더 많은 온라인 CEU 코스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건강 및 의학 전문가들을 위해 비슷한 온라인 CEU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재학생의 부모를 위해 시도해 볼만한 온라인 코스를 개발하고 탐구하는 이들의 활동은 실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연계의 실질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영재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해 의학 공동체와 심리학 협회가 협력하여 영재와 영재부모 및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온라인코스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영재부모지원체제가 다양한 학문과 전문인, 조직과 개별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큰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SENG의 세 번째 영역은 ‘다양한 사람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NG은 가난, 언어적 장벽과 개인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증가하는 영재아와 청소년들의 사회 정서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라틴 아메리카계 영재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법정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의 가족들이 SENG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아를 사랑하는 25가지 방법’이라는 영어로 된 소책자를 스페인어, 중국어로 개정 및 재출판하고 있다. 그 외에도 SENG은 다양한 문화와 계층격차, 민족,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통역할 수 있는 영역의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준비 및 미국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있는 영재관련 단체를 위해 유용한 소책자 등을 만들고 제공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SENG이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천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영재부모지원체제의 일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교육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면에서 큰 교훈이 된다. SENG의 네번째 영역은 ‘부모와 전문인들을 위한 교육’이다. SENG이 주최하는 컨퍼런스는 영재아들의 가족과 전문인들이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재와 가족, 전문인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공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기술적 용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진단의 오류, 다른 높은 요구가 있는 토픽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SENG은 영재와 성인들의 사회적, 정서적인 욕구에 관한 음향자료 도서관 건립 추진 중이며 그 자료 도서관 안에 가능한 스페인어로 된 자료도 포함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실제적 성과를 떠나 영재의 부모와 가족, 전문인들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SENG의 존재는 영재와 그들의 부모, 전문인들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주 일회 두 시간 남짓의 영재교육 시간과 턱없이

부족한 영재담당 전문 인력과 예산문제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영재교육 현실 속에서는 어쩌면 영재부모지원 문제를 운운하는 것이 크게 공감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체제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영재와 영재를 돕는 부모와 교사 및 관련 전문인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더욱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영재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가정과 부모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SENG의 다섯 번째 영역은 ‘기금 운영’이다. 그들은 특별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SENG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후원기금을 모으고 있다. 돈은 영재들과 가정, 전문인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화를 통한 만남, 기록 보관, 사무실 물품과 다른 일상의 잡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의 지원을 위해 쓰여지며 그 외에도 기부자, 자원봉사자, 위원회의 멤버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SENG은 인터넷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유포하며 다양한 지원과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SENG이 실천하고 있는 영재부모지원의 종합적 서비스 내용이다. 물론 미국과 우리의 영재교육현황은 다르며 영재부모지원을 위한 사회, 문화적 기반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영재부모를 가르치고 교육 하는 방식의 지원을 주로 제공하던 우리의 지원체제에서 볼 때 SENG의 부모지원모델은 어쩌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한편 연구자는 SENG을 모델로 삼아 굳이 우리나라도 위의 모든 프로그램과 지원체제를 모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시급한 것,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재부모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본 연구의 취지와 연결해 생각해볼 때 SENG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SENG은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제시했던 영재부모지원의 개념을 폭넓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영재부모지원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현재의 부모지원 문제를 발견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영재부모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된다.

III. 영재부모 지원의 새로운 접근

앞에서 연구자는 SENG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모지원 사례를 제시했다. SENG의 지원은 내용이나 방법, 대상, 범위 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지만 영재학생의 부모를 어떻게 지원할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에 III장에서는 I, II장에서 논의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영재부모지원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행정적 기준과 법제 마련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기초해 영재교육이 계획 수립,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재교육 시행 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연구자는 개정 예정인 영재교육진흥법에 영재부모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가적자원의 수혜 대상으로서의 규정 및 영재와 가정, 학교생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 각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모델로 일반인과 다른 영재학생들의 참된 교육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영재와 부모, 학교, 교육기관, 전문인들을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개정을 위해 제기되는 안건 중의 하나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교사 추천이 필수 요건이나 일반교원의 경우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과정에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매

우 반가운 방안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일반교사들에게 영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현직 연수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에서의 직전교육과 임용고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교원양성(유, 초, 중등)을 위한 직전교육에 영재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반 교원 연수 시 잠깐 접하게 되는 영재관련 연수는 그 실효성 면에서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행정적 기준 마련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적 자원의 실현으로서의 영재부모 지원 및 효율적 영재교육실현을 위한 연계방안 및 교사양성체제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영재부모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주체 지정 운영

현재는 영재교육진흥법 제 4조에 의거해 중앙부처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장학사 중심의 ‘영재교육 협의회’와 영재교사 중심의 ‘영재교육연구회’ 등의 조직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방안으로 ‘각 위원회와 조직을 활용해 영재부모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재교육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기에 때문에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가정간의 연계 효율성 면에서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몇 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영재관련 담당 실무 장학사 및 연구사 등의 인력이 매우 적고 담당자의 전출입이 잦아 실제적으로 업무파악하기도 벅찬 실정이라 영재부모지원 업무까지 수행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영재교사 중심의 ‘영재교육연구회’나 영재교육담당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영재교사 확보가 어려운 교육원도 많고 소속된 학교의 담임업무와 영재교육담당 업무 과중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교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자료수집, 상담시간의 확보 어려움, 연구 및 협의 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영재부모지원의 실현 가능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첫 번째 안은 전문 인력의 별도, 추가 배치 및 지원을 전제로 검토될

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실태는 외국의 경우처럼 영재교육의 연속성 및 체계성이 미흡하고 일반교육과의 연결성이 약해 사실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지원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짧은 영재교육 시간 내에서 지도하는 영재학생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 및 자료 분석과 상담의 전문성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 영재교사가 대다수인 현실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영재부모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자칫 학생을 지도하는 기본적인 영재교육업무에 조차 저해가 되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상담으로 인해 역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두 번째 방안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와 영재부모, 교육기관 등의 지원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체계적 계획, 관리, 운영의 주체로서 기능할 독립된 전문 기관(종합지원시스템) 및 중앙, 지역별 전문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영재자녀의 부모와 학자, 교사, 심리학자들이 협력해 많은 영재교육의 성과를 이룩한 미국의 SENG이나 Columbus Group의 사례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세 번째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 연구 기관에서 중앙부처나 시, 도교육청 영재교육담당자, 전문가(대학의 교수, 상담사, 심리학자, 치료사 등), 연구기관, 영재교육담당교사, 영재자녀를 둔 부모로 구성된 상설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영재부모지원업무를 병합해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볼 때 영재를 위한 부가적 자원의 일환으로서 전문적, 체계적, 총체적으로 영재와 가족, 관련 전문가와 교사,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 주체(종합지원시스템)는 반드시 필요하다. 꼭 새롭게 건립한다거나 영재부모만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기존의 영재교육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재와 부모, 가족, 관련 전문인과 영재가 속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전문적인 국가적 차원의 기관이나 부서 또는 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한 때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소외 속에 방치되었던 장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기회, 성공적 삶을 위한 인권 쟁취를 위해 정부와 사회에 그 부모와 전문인들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

해 달성해낸 성과를 거울삼아 영재교육에서도 진정한 교육평등을 실현해가기를 기대한다.

3. 영재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교육의 제도화

영재와 영재부모, 영재가정과 소통하고 영재부모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영재교육담당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의 영재교육전공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영재교육전공 이수 과정 중에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유아교육전공의 경우 부모교육과목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데, 유아기 부모의 중요성이나 일반자녀에 비해 독특한 필요와 한계를 경험하는 영재아들의 부모를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좌의 개설은 매우 자연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한편 현재는 영재교육전공이 개설된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에 '부모교육'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대학원의 영재교육과정에 부모교육과목이 개설 운영되는 것 또한 영재부모지원의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총체적 차원의 영재부모지원의 방향

앞서 연구자는 I, II장을 통해 영재부모 지원의 개념을 폭넓게 살펴보고 영재부모지원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들을 탐색했다. SENG이 시행하고 있는 영재부모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폭넓게 전문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 국내영재교육의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 총체적 차원의 영재부모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하는 모든 내용은 영재부모지원의 총체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실제적인 영재부모지원의 방향을 수립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 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영재교육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가. 영재부모지원의 기본 원리

영재부모지원은 영재성의 ‘가변성’을 인지하고 영재성의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원리로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영재교육은 주로 초등기에서 고등기의 학생들 중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 영재성은 매우 가변적이어서 다양한 현실 상황과 문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발달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첫째,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서부터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영재성의 가변성을 고려해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영재성을 성장·발현해갈 뿐만 아니라, 연령과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기나 대학 등의 교육기간 만이 아니라 학령전기 즉 영유아기나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교육 이후 즉 전문인으로 성장한 이후의 활동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원리로 계획되어야 한다. 국내 영재교육은 그야말로 영재를 교육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아무리 좋은 인재를 육성한다 하여도 그들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영재성을 성장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터전이나 진로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영재부모지원은 영재성의 ‘가변성’ ‘연계성’ ‘지속적 지원과 관리’의 원리를 기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안내하고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 영재부모지원 시스템 속에서의 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영재부모지원 시스템이라 하면 주로 영재부모만을 위한 지원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건강한 영재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영재교육의 주요 주체로서의 영재부모지원은 그 지원 대상의 폭이 훨씬 넓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 대상으로는 ‘영재’와 ‘영재부모’,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인’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영유아 시기의 영재, 이공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영재, 장애를 가졌거나 미성취 상태의 영재, 다문화 가정의 영재, 농어촌 지역의 영재, 소외계층의 영재와 영재부모, 이들과 관계

된 교사와 교육기관, 행정가, 상담가, 치료사, 연구자, 심리학자, 교수 등에 까지 폭넓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웹상의 커뮤니티나 다양한 자료 공유는 이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 연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지원의 내용

영재부모지원 내용을 실제로 수립하고자 할 때는 우선 먼저 주요 대상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재의 개인적 특성 및 영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 특성에 대해 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들이 양질의 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문서를 저장해두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추천도서를 선정해 목록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CD등의 자료로 개발해 유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재양육과 교육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론이나 논문, 도서, 교수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준다면 영재의 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들은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재아의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의외로 유사한 문제 상황이 많고 그 해결 사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유용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담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나 온라인, 면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영재부모는 제2의 영재교사이다. 영재들은 다양한 일상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선택하고 자신의 영재성을 키워간다. 더욱이 1~2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만 영재교육을 받는 현실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영재성의 평생성장과 일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자녀의 연령과 성장발달 단계, 영재성의 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전문성은 다르기 때문에(Subotnik, R. F., & Jarvin, L, 2005) 영재부모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포괄적 차원의 지원과 교육, 자료제공이 필수적이다. 이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영재부모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폭넓게 구비하고 영재부모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나 교육, 워크숍 등을 기획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사용되었던 참고자료나 도움자료, 워크숍 등의 비디오 자료 등도 공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준다면 현행 영재교육의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볼 때, 영재아, 영재성, 영재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영재아의 가족(형제, 자녀의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활동이 필요하다. 영재 관련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의 연계(조력자 또는 전문기관들의 명단 확보 및 제공), 조정, 통합(일반 학교 수업), 조기발견(판별, 장애나 부적응, 정서, 행동, 관계상의 문제 등), 영재교육대상학생의 진단, 추천, 배치, 학교 적응 문제를 지원(학교, 또래, 교육과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재교육, 통합교육, 상담, 치료교육에 대한 기술적 도움도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 상담, 치료교육 등의 연계서비스 제공 및 학교 진로, 다양한 유형의 입시(예, 입학사정관 제도), 유학 관련 안내, 영재아와 영재부모의 평생교육 지원 및 자료 수집, 영재교육 관련 연수의 제공과 지원, 영재교육 관련 자료(과거, 최신), 기자재 및 교구 등의 대여 활동은 매우 필요로 하는 도움의 내용들이라 사료된다.

라. 다양한 차원의 지원 실행

현재 국내의 영재부모지원은 주로 부모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차원에서 출발해 영재부모 지원활동을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SENG의 종합지원시스템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영재부모지원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차원뿐만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대상’, ‘부모(가정) - 기관 의사소통’, ‘부모(가정) - 기관 관계’, ‘영재교육의 적극적인 주체’, ‘예술적 적용’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방적인 교육이나 강연회 위주의 한정적인 부모지원 활동은 영재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로부터의

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최적의 영재교육 성과를 달성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영재부모를 위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경우에는 위의 다섯 개 차원의 지원을 고려해 건강하고 소통적인 부모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 종합지원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

영재부모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첫째, ‘연결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영재들은 자신과 비슷한 능력, 성향, 관심, 열정을 보유한 동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현상은 영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영재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비슷한 자녀를 둔 부모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교류하기를 원한다. 영재와 영재부모들이 동질집단과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부모들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부모 간에 웹상에서 소통하거나 시중의 웹포탈 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 중심으로 부모모임을 통해 자유롭게 활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영재부모의 사실적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기에 매우 미흡하고 열악한 수준이다. 한편 영재관련 전문가나 상담가, 치료사, 일반학교 교사, 영재담당교사 등도 동질집단 또는 이질 집단 간에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영재부모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은 영재와 부모, 전문인, 교사 등 다양한 주체와 담당자, 전문인들 간에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정보 제공의 기능’을 제안하고 싶다. 어쩌면 영재부모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의 기능의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재와 영재교육관련, 영재상담, 영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 자료 등의 정보 외에도 영재교육 관련 다양한 전문가나 연구기관, 전문기관들의 정보와 자질, 전문성 등을 기록한 정보나 연락처 등을 제공해주는 것은 실제 많은 영재부모들에게 사실적으로 필요한 도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영재로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제공받는 경우이던,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했던 간에 영재교육과 관

련한 기본 정보 및 정책, 특전,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대해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전문가 육성 기능’을 들 수 있다. 영재부모를 위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재부모교육이나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 및 학교, 조직, 지방의 훈련 담당자 등을 교육하고 훈련해 육성하는 역할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에 영재부모를 위한 종합 지원시스템 속에는 전문인을 육성하는 기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영재가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다양한 심리학자, 상담가, 의사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온라인상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다. 영재들은 독특한 욕구와 성향, 행동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갈등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데, 웹상에 이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나 사례가 제공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온라인상으로도 조언을 들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영재성 발달의 좌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예방 및 소외층 지원(가난, 언어, 문화 격차, 인종 등)’의 기능을 들 수 있다. SENG과 같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나 가능하지 우리의 빈약한 영재교육 현실 속에서는 이런 활동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우 거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불우 영재나 소외계층의 영재를 돕고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를 찾고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기금을 모금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영재교육은 어찌면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요, 영재교육을 통해 사회봉사와 기여, 헌신을 통해 참된 리더십을 기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영재교육을 ‘귀족교육’이라는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많은 사회인들에게 참된 교육복지와 사회기여의 한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교육기능’을 들 수 있다. 어찌면 다양한 기능 속에 교육기능은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그 어떤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 기능 중이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많은 부모와 교사, 일반인들은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다. 이런 현상은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부모나 영재를 실제 지도하는 교사나 일반학교의 담임교사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의외로 영재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영재교육의 취지 및 영재교육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해 전혀 무지해 그동안의 영재교육의 효과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마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에 일반인, 영재부모, 일반부모, 일반교사, 영재담당교사, 영재관련 행정가,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상담가, 치료사, 의학전문가, 사업가 등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영재교육에 대해 궁금하면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참가 신청을 통해 연수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소식지를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소책자 등을 반간해 유포하는 역할 등도 교육기능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계획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으면서

영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지극히 개별적이다. 영재학생과 영재부모는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재가 건강한 인격체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재부모들은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일상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지 않은 채 그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공허한 외침을 지속해 왔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대사회, 진화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영재아들은 자신의 재능을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길잡이를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해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근거 없는 정보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마음에 끌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실태에서는 영재를 위한 특별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며 유보하는 동안 영재들은 자신의 다름에 대해 고민하고 완벽주의, 높은 성취동기로 인해 갈등하고 아파하며

우울증이나 심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며 자살시도, 학교 자퇴 문제, 해외 도피 유학 등의 파행적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적 상황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성이 있다. 교육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간판글로 소개되는 화려함의 이면 사각지대에 가려져 도움의 필요조차도 떠올리지 못하게 되어버린 영재아들의 일상이 발견되고 도움의 손길이 미쳐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까지 연구자는 영재교육의 참된 성과를 위해 영재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별 문제의식 없이 ‘부모교육’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국내의 영재부모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폭넓은 영재부모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과 다른 영재부모의 양육태도나 요구조사에 머물러 실제적인 부모지원을 위한 구체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던 과거의 연구에서 한걸음 진보해 영재부모지원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영재성의 분야에 따른 해당부모들의 욕구와 필요 파악을 통해 수행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영재부모의 필요에 관한 선행 연구에 기초해 수행되었으므로 향후 다양한 연령과 계층, 분야별 영재부모의 사실적 필요와 욕구조사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충열 (2007).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가정교육 10訓. 兒童教育, 16(1), 31-48.
- 구미숙 (2004).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동춘 (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어머니 양육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미숙, 서혜애, 이해연 (2005). 영재교육 강화 사업성과 지표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원, 최성연 (2002). 영재아의 부모 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3), 671-681.
- 김연진 (1983). 영재유아의 판별과 교육에 관한 연구. 상지영서대학 논문집, 제 23집, 103-127.
- 김은영 (2003). 유아의 영재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정휘(2001).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역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선 (2008).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 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김현희 (2004). 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초등 영재아 부모의 요구 분석. 문화콘텐츠연구, 9(2), 99-122.
- 김홍원, 박성익, 조석희,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희진(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 교육과 지원. 서울: 파란마음.
- 도정은 (1999). 영재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관한 부모의 정보탐색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문윤희 (2006).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39(99.9), 141-151.
- 민경혜 (2006). 영재자녀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박인호, 한기순, 권남오, 양태연, 이운학, 정태봉 (2006). 학부모 과학영재교육센터. 한국과학재단.
- 배진수 (1995). 영재아동의 교육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5, 181-223.
- 송인옥 (2006).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양소희 (2007). 영재 교육기관과 일반 교육기관 아동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 및 영재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원은실; 오종철 (2008). 학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영재교육연구, 18(2), 265-292.
- 이미선, 김태준, 이유훈, 조광순 (200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이영순 (2006). 영재 학부모와 일반 학부모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비교.

-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원영(1997).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5(2), 193-205.
- 정환명 (2008).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 대학원대학교.
- 조석희 (1987). 취학 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개발*, 50(87.10), 60-64.
- 최정남 (2005). 영재유아 아버지의 교사로서의 부모태도와 지능 발달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한기순 (2006).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서 본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9(1). 123-151.
- 홍의숙 (2003). 영재의 특성 및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Ann Robinson, Bruce M. Shore, Danna, L. Enersen (2008). *경험연구에 기초한 영재교육* [이경화, 김혜진, 김옥분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원본출간년도: 2007)
- Baldwin, L. J. (1994). *Portraits of gifted/ learning disabled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Braggett, E. J. Ashman, A. & Noble, J. (1983). The expressed need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 80-84.
- Chamrad, D. L. Robinson, N. M, & Janos, P. M. (1995). Consequences of having a gifted sibling: Myths and realities. *Gifted Child Quarterly*, 39(3), 135-145.
- Clark, B. (1992). *Growing up gifted.* New York: Merill.
- David, F. Dettmann, Nicholas Colangelo. (2004). *A Functional Model for Counseling Parents of Gifted Students/ Sally M. Reis. Social Emotional Issues, Underachievement, And Counseling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California: Thousand Osaks.
- Feuerstein, R. (1980). *Instrumental Enrichment: an Intervention Program for cognitive Modifiability.*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Fouse. B. Beidelma. V. & Morrison. J. (1995). Keeping peace with parents of the gifted. *Gifted Child Today*, 18, 39-41.
- OECD (2004). *Equity in educ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arning difficulties, and disadvantages.*
- Okagaki, L. & Divecha, D. J.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lszewski-Kubilius, P. (2002). *Parenting practices that promote talent development, creativity, and optimal adjustment*. In M. Neihart, S. M. Reis, N. M. Robinson., & S. M. Moon(Eds),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205-212). Waco. TX: Prufrock Press.
- Page, B. A. (1983). A parent's guide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5(4), 39-42.
- Rimm, S. (2007). 미성취 영재학생들을 위한 전략 이들을 위한 대처 방안. [안도희, 김옥분,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본출간년도: 2006)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families*. In L. K. Silverman(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Denver, CO: Love Publishing.
- Subotnik, R. F., & Jarvin, L.(2005). Beyond expertise: Conceptions of giftedness as great performance.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Eds), *Conceptions of giftedness*(2nd ed), 343-35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cs, C. A. (1986). *Enjoy your gifted chil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SENG 홈페이지. <http://www.sengifted.org> (검색일: 2009. 06. 20)
- Gifted Child Society 홈페이지. <http://www.gifted.org/parent/parents.htm> (검색일: 2009. 06.20)
- 한국교육개발원 Newsletter 2009. Vol. 6 NO. 1/2 : 영재교육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방안.

= Abstract =

New Approaches Supporting to the Parents who Have Gifted Student

JinMi Tae

Korea University

In spite of the previous research that had bee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arents' assistance for revealing genius and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there wa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how to drive the parents participation and support.

Not considering "what and why" about the supporting of parents of gifted students, it was vaguely generalized that the education from the supporting parents was important. However, this situation will have a possibility of missing out on more important things of gifted children's parental support.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deal with a variety of effective ways to clarify what the parents can do to support their gifted children and the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those ways. Furthermore, by suggesting some of the ways that can complement the system of current parental support, it will set up fundamental ways to help the supporting parents.

Key Words: Gifted student, Parents of gifted student, Family of gifted student, Supporting parents

1차 원고접수: 2009년 7월 10일
수정원고접수: 2009년 8월 17일
최종게재결정: 2009년 8월 25일